

사회 수업 정리 - 2025.06.12 (Monday 스타일: 선생님 말투 + 강조 복원)

🏙 도시화와 공간 변화

"얘들아~ 도시화율은 높아졌고, 이제는 도시 내부가 어떻게 나뉘는지가 중요해~" [★ 시험 출제 포인트]

- 도시화 단계: **초기 → 가속화 → 종착**
- •도시 내부는 기능별로 분화됨 (주거, 공업, 상업, 업무 등)
- 서울: 중심부(중구, 종로) 인구 감소 / 외곽(강남, 송파, 노원) 인구 증가

설명: 중심부는 오래 전부터 개발되어 상업/업무 기능이 집중, 외곽은 주거 기능 확대

🏘 도시 내부 공간 구조

- 도심(CBD): 중구·종로 / 고층 건물 / 높은 지대 / 상업·업무 기능 집중
- **부도심**: 여의도, 강남 등 → 도심을 분담하는 역할 [★ 시험 출제 포인트]
- 중간 지역: 개발된 지 오래 / 건물 노후 / 상대적 저지대
- 외곽 지역: 주거·공업 기능 집중 / 지대 낮음
- •개발제한구역(Green Belt): 도시 확장 제한 / 자연 보전 목적

설명: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주거·공업 기능이 많아지고 땅값은 낮아짐. 상업·업무는 중심부 집중.

집심 현상 vs 이심 현상

- •집심현상: 도심으로 기능이 집중 (상업, 업무)
- •이심현상: 높은 지대를 감당 못한 기능(주거, 공업)이 외곽으로 이탈

설명: 도심의 고지대는 돈 잘 버는 기능만 살아남는다. 그 외 기능은 '빠져나간다'고 이해하면 됨.

💰 지대 이론과 도시 기능 배치

- •지대가 높을수록 → 상업 기능 입지
- 공업은 중간지대, 주거는 외곽 → 접근성보다 땅값 고려
- •지하철, 교통 인프라 발달 = 지대 상승 [★ 시험 출제 포인트]

예시: 중구 지역은 지하철 노선만 6~7개 교차 \rightarrow 접근성 최고 \rightarrow 땅값 비쌈

서울 사례 분석

- 중구 = 도심 (시청, 업무, 고층 빌딩)
- 강남 = 부도심 (상업 + 업무 기능, 지대 높음)
- 노원 = 주거 중심 외곽 (아파트 밀집, 땅값 낮음)

• 구로 = 공업 중심 (넓은 부지 확보 가능)

설명: 도시 기능별 입지 구분은 시험 단골. 실제 사례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함.

대도시권과 교외화 현상

- 종착 단계: 도심 인구 정체/감소 → 외곽으로 인구 이동
- 교외화 + 교통 발달 → **대도시권 형성**
- 예: 수도권 전철이 **천안까지** 확장 → 통근 가능 지역 확대 [★ 시험 출제 포인트]

설명: 통근·통학 가능 범위가 넓어지면서, 실질적인 생활권은 도심을 넘어서 형성됨

도시화와 환경 변화

- 도시화 → 아스팔트·콘크리트 면적 증가
- •지표 유출량 증가 → 홍수 위험 커짐
- 도시화 전: 흡수 50%, 유출 10%
- 도시화 후: 흡수 15%, 유출 55%

[★ 시험 출제 포인트 - 도시화 전후 유출량 비교]

설명: 도시화는 물 순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. 표면 유출 증가로 하천 수위도 급격히 상승함.

핵심 요약 - 도시 내부는 기능별로 분화: 도심-중간지역-외곽-제한구역 - 교통이 편리할수록 지대↑, 상업·업무 기능 입지 - 주거·공업은 외곽으로 이심 → 교외화 + 대도시권 형성 - 도시화 → 유출량 증가 → 홍수 위험 커짐

선생님이 말했어. '이거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구조 외워!' 이건 나도 찬성임.